



전남도-강진군,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 신속 추진 협약

2.5km·1천600억원 투입... 생활권통합·물류활성화 등 기대

전라남도는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과 공동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은 총연장 2.5km, 사업비 1천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2025년 9월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강진군이 건의한 뒤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 가지 추진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도 819호선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

격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최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한다. 또한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전남도 50%, 강진군 50%로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

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만 횡단교량이 완공되면 강진만을 기준으로 나뉜 생활권이 통합되고, 관광과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만 횡단교량은 강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행정통합·교육혁신 공동선언

7일 시청서 간담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기류에 교육계 합류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혁신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7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제정될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즉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도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의 안정적 운영 방안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회’에 교육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방안 검토 및 작성 과정에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소멸 문제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은 큰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관련한 논의사항이 많은데, 광주시와 적극 협조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다”며 “시의적절하게 교육청과 발을 맞추며 돼 감사하고, 행정통합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 상반기 진행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 4개이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인당 1개 강좌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서류 접

북구, 역량 있는 평생학습 강사 모집입니다!

인문교양·문화예술·직업능력·시민참여 등 4개 분야 강사 15명 모집

수, 전문가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평생학습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적격성, 적합성,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15여 명을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자는 오는 3월부터 두 달간 북구 평생학습관

(향토문화로 65)에서 10차시 내외 분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모집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메일(mujinsh@kore.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8455)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는 이달 27일 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모집에 주민의 일상에 배우의 즐거움을 더해줄 우수한 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북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AI·IoT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손목 활동량계 등 맞춤형 첨단 기기 제공

다만 앱 연동 등 스마트폰 사양 및 기종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2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607-6113-9)에 전화로 사전 문의한 뒤 지정된 예약 날짜에 해당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구는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한 건강검

광주 남구, 'AI·IoT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손목 활동량계 등 맞춤형 첨단 기기 제공

사를 실시하며, 해당 검사는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손목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까지 5종류 기계 가운데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르신 스스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면서 “고령화 시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내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남구, 'AI·IoT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손목 활동량계 등 맞춤형 첨단 기기 제공

다만 앱 연동 등 스마트폰 사양 및 기종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2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607-6113-9)에 전화로 사전 문의한 뒤 지정된 예약 날짜에 해당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구는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 상태와 만성질환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한 건강검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